

7월 23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7월 23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p>美 증시 8일만에 조정..다우 0.3%↓</p>	<p>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34.68포인트(0.39%) 떨어진 8,881.26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0.18포인트(0.53%) 오른 1,926.38을,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0.51포인트(0.05%) 소폭 하락한 954.07을 기록. 이날 뉴욕증시는 약세로 출발. 연일 상승에 따른 부담감과 모간스탠리, 야후 등 주요 종목들이 부진한 실적을 내놓고, 웰스 파고의 대출 부실 증가 문제가 부담으로 작용. 그러나 기술업종 대표주인 애플과 다우 종목인 화이자, 커피체인업체 스타벅스 등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보인데 힘입어 저가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돼, 3대 지수는 장중 상승세로 돌아서기도 했음. 하지만 7일 연속 상승한데 따른 부담으로 장후반 차익매물이 다시 늘어나 뉴욕증시는 지수별로 등락이 엇갈리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p>
<p>美 집값 하락폭 10개월래 최저</p>	<p>연방주택금융청(FHFA)은 22일(현지시간) 지난 5월 주택가격지수가 전년동월대비 5.6% 감소했지만 전월에 비해서는 0.9% 상승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년대비 감소폭은 최근 10개월래 가장 적었을 뿐만 아니라 전월에 비해서도 예상과 달리 증가세를 기록. 블룸버그통신 조사에서는 전월비 0.2% 감소가 전망됐었음. 지역별로는 전년대비 집값이 상승한 곳은 한 곳도 없었음. 캘리포니아가 14% 떨어졌고, 사우스 애틀랜틱이 6.6%, 뉴욕과 뉴저지지역이 4.3% 하락. 그러나 전월에 비해서는 몇몇이 증가세를 나타냈음.</p>
<p>美정부, 골드만삭스 구제금융으로 연 23% 수익</p>	<p>골드만삭스는 지난해 구제금융의 대가로 재무부에 제공했던 주식매수권(워런트)을 11억달러에 되사들였다고 이날 밝혔다.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10월 부실자산구제계획(TARP)을 통해 100억달러를 지원받았으며, 지난 6월 이를 상환. 이 기간 동안 골드만삭스가 워런트 채매입과 배당금지급으로 재무부에 지불한 총 금액은 14억1,800만달러로, 연간 수익률로 보면 23%에 해당함.</p>
<p>中 부동산, 6월이후 본격적인 회복국면 진입</p>	<p>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6월이후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주중 한국대사관 재경관이 분석했다. 주중 한국대사관의 유광열 재경관은 22일 `최근 중국 부동산 경기흐름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 2분기 들어 거래량·가격 등에서 회복기미를 보이던 부동산시장이 6월 들어 거래가격이 상승하고 신규착공 면적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진입했다"고 분석.</p>

제목	주요 내용
여행업계 성수기 예약 `선방`..하반기 기지개 펴까	22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하나투어(039130)의 7월 모객률은 작년 같은 달의 90% 수준을 보이고 있다. 8월에도 75% 정도. 모두투어(080160)의 경우 7월에는 전년 86% 정도 모객한 상태며 8월에도 78%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자유투어(046840)는 7월 95%, 8월 60%를 기록중이고 레드캡투어(038390)도 7월 모객률 85%를 보이고 있음. 하나투어 관계자는 "상반기 경기침체와 신종플루 악재로 모객률이 한때 60%까지 떨어졌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선전하는 것"이라며 "어느정도 목표치에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최근 예약하고 출발하기까지 시간을 의미하는 `리드타임`이 점차 짧아지는 추세인 만큼 8월 모객률은 좀더 높아질 수 있다는게 업계 시각.
최대 매출·최대 이익` LG전자, 눈부신 2Q 실적	LG전자는 22일 글로벌기준 2분기 매출액이 14조4,974억원, 영업이익이 1조1,33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분기 영업이익은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으며 매출 역시 처음으로 14조원대를 돌파. 이같은 실적은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및 LCD TV 수익성 개선, 에어컨 성수기 진입, 전자 비용절감 등의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음. 지난 2분기에는 LG전자의 5개 사업본부 모두 1분기에 이어 흑자기조를 유지했음. BS 사업본부를 제외한 4개 사업본부가 2분기 매출에서 최고기록을 경신.
현대차그룹, 2013년까지 4.1조 친환경 투자	현대차(005380)·기아차(000270)그룹은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적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국내외적으로 한층 강화되고 있는 환경 및 연비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3년까지 총 4조1,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22 밝혔다. 그룹은 2013년까지 하이브리드카, 수소연료전지차 등 친환경차 개발을 위해 2조2,000억원(R&D투자 1조2,000억, 시설투자 1조원)을 투자하기로 했음. 또 고효율, 고연비 엔진·변속기와 경량화 소재 개발에 1조4,000원(R&D투자 1조원, 시설자 4,000원), 각 공장 CO2 감축을 위한 에너지 관련 시설투자에 5,000억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